

##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및 개선방안

박 광 현 \*

광주여자대학교 경찰법학과

# Crime Prevention by Using CPTED and Improvement

**Kwang-Hyun Park\***

Department of Police&Law, KwangJuwomen's University, GwangJu, Korea

### [요 약]

21세기 화두는 위험사회에서 체감하고 있는 범죄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대하여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안전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질적, 양적인 측면에서 학교폭력, 묻지마 범죄, 층간소음범죄 등과 관련된 강력범죄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법제도적 개선방안으로써 환경범죄학(Environmental Criminology)에서 바라 본 범죄예방 도구이자 전략인 CPTED가 하나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범죄예방 기준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대 위험사회에서 강력범죄 및 경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사회 안전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제한된 경찰력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환경설계를 통해 범행기회를 심리적,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을 모색함으로써 범죄예방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 [Abstract]

This study is to find out empirically how the fear of crime is affected by the level of recognition of people. CPTED elements including natural surveillance, access control, utilization enhancement, territoriality securement, etc. Safety of residents could be considered and then increased when we plan, design, and operate a city. In Korea, CPTED is currently being applied to every town. However, it is not systemized and neither efficient, for there are no constraint provisions, and the foreign cases are not specifically customized to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country. This study, therefore, aims to find the limits from analyzing related laws and regimes,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applied cases, and to deduct improvement plans based on examined foreign cases.

**색인어** : CPTED, 묻지마 범죄, 위험사회, 여성대상범죄, 조현병, 층간소음, 환경범죄학

**Key wor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Motiveless Crime, Risk Society, Crime against Women, Schizophrenia, Floor impact noise, Environmental Criminology

<http://dx.doi.org/10.9728/dcs.2017.18.4.733>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20 July 2017; **Revised** 25 July 2017

**Accepted** 28 July 2017

**\*Corresponding Author; Kwang-Hyun Park**

**Tel:** +82-62-950-3760

**C.P:** +82-10-8605-1124

**E-mail:** sanaigo@naver.com

## 1. 서론

한국은 산업화, 근대화, 정보화 등을 거쳐 인공 지능(AI), 사물 인터넷(IoT), 빅데이터, 모바일 등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형사법 분야에서도 영향을 미쳐 범죄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지능범죄, 동기범죄에서 무동기 범죄 또는 충동살인에서 연쇄살인처럼 예측이 어려운 범죄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1인가구시대, 디지털 시대, 위험시대 등 사회적 영향이 범죄형성에 다양한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2016년 5월 강남역 노래방 살인사건<sup>1)</sup>과 6월 섬마을 여교사 사건<sup>2)</sup>, 2017년 인천초등생 살인사건 등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평가되지만 한편으로는 범죄에 대한 무방비 상태의 사회적 환경도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된다. 또한 층간소음 분쟁이 이웃 간의 사소한 갈등을 넘어 살인 및 방화, 폭행 등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사회적 환경과 범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는 1961년 제인 제이콥스의 “위대한 미국 도시들의 삶과 죽음”<sup>3)</sup>, 1971년 사회 범죄학자 레이 제프리의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sup>4)</sup> 그리고 1972년 오스카 뉴만의 “방어 공간”<sup>5)</sup>이라는 저서에서 환경 설계와 범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후 미국은 이를 토대로 1970년대부터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정책을 주저지뿐만 아니라 공공시설과 학교에 적용하기 시작하여 CPTED 기법을 발전시켰다. 이에 대해 우리의 선행연구는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는데 초기에는 환경학자들과 건축학자들에 의해 물리적 공간특성에 초점을 맞춰 학교와 그

주변 환경 및 도시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CPTED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연구와 건축분야의 범죄예방설계 프로그램의 도입 및 CCTV를 통한 물리적 설계적용이 주를 이루었다. 이후 CPTED의 사회문화적 요인과 범죄학 등을 토대로 사례를 통한 법제도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2010년부터 셉테드이론에 관한 심층적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지방자치단체도 조례제정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는 점차 이 기법의 도입이 확대되어 주거 밀집지역 및 공공시설물의 환경개선과 방법론이 연구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는 CPTED의 현행 관련법규 및 국내의 적용사례를 살펴보고 범죄예방을 위한 CPTED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II. 범죄예방에 관한 관련법규 및 원리

### 1. 관련법규

CPTED는 범죄예방 활동 측면에서 경찰력만으로 범행 발생의 환경적 요소까지 일일이 제어하기 어렵다는 물리적 한계에 부딪히자 환경 친화적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도입된 범죄예방 기법이다.

현행법상 CPTED와 관련된 범죄예방 법규는 ‘건축법’<sup>6)</sup>, ‘도시정비법’<sup>7)</su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p>8)</sup>, ‘도시개발법 시행규칙’<sup>9)</sup> 그리고 국토교통부

1) 2016년 10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공동체 전체에 대한 범행으로, 사회 공동체 전반에 대한 범행으로 큰 불안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30년과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을 선고했다.

2) 2016년 10월 13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의 징역과 성폭력치료 교육이수 40시간도 병형 선고되었다. 그러나 광주고법 제1형사부 항소심에서 각각 10년, 8년, 7년과 성폭력치료 교육이수 40시간으로 감형되었다.

3) Jane Jacobs,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Vintage Books, 1961. p 138, "If self-government in the place is to work, underlying any float of population must be a continuity of people who have forged neighborhood networks. These networks are a city's irreplaceable social capital. Whenever the capital is lost, from whatever cause, the income from it disappears, never to return until and unless new capital is slowly and chancily accumulated."

4) C. Ray. Jeffery.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Sage Publications, 1971.

5) Oscar Newman. Defensible Space. New York:Macmillan, 1972. 뉴만은 영역설정(territoriality), 감시(surveillance), 이미지(image), 주변지역보호(safe area and street) 등 4가지 물리적 환경 설계를 통한 방어공간 조성의 기본요소를 제시하였다.

6)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7)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지구가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이를 수립한다.

13의2. 재정비촉진사업 시행기간 동안의 범죄예방대책

8) 제8조(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에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이하 "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공원조성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 가. 개발목표 및 개발방향

나. 자연·인문·관광환경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자료 다. 공원조성에 따른 토지의 이용, 동선(動線), 공원시설의 배치, 범죄예방, 상수도·하수도·쓰레기처리장·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조경 및 식재 등에 대한 부문별 계획

9) 제9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영 제8조제14항제1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노인복지시설계획 2. 방재계획 3. 범죄예방계획

의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sup>10)</sup>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법무부는 안전행정부(現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 평가요소에 셉테드 교육이수와 사례의 의무화를 법제도적으로 체계화하였다. 국토교통부는 1992년 설계사무소에 “방법설계를 위한 지침”을 제시한 이후 도시, 건축 등 셉테드 정책화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경찰청은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2013년에 ‘편의점 방범인증제’, 지오프로스(Geo-Pro)<sup>11)</sup>를 통해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에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부는 셉테드를 적용하여 학교 내의 폭력을 예방하고 있는데 범죄에 취약한 사각지대를 CCTV 및 건물의 개보수를 통해 예방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셉테드학회는 학교시설, 가로구역 등 공공시설과 공동주택, 상업시설 및 업무시설 등도시공간의 유형별로 적용할 수 있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평가기준을 개발하여 “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림 1. 한국셉테드학회 범죄예방환경설계 인증절차  
 Fig. 1. CPTED Certification Process in Korea CPTED Association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뉴타운사업, 공원, 지하철, 일반주거지역 등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있고 광주광역시도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통해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개선하여 은폐장소 최소화라 개방감을 확보하고 스토리텔링 벽화사업, 특수형광페인트 도포, LED보안등, CCTV, 안전마을 게시판 설

1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5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3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1) 최종별 범죄발생 위치, 시간, 지역별 유동인구 등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별 범죄 가능성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현재 우리의 지오프로스는 최종별 범죄 발생 위치와 시간, 특정지역의 유동인구와 가구소득, CCTV 수, 유흥업소 현황, 당일 기상정보 등의 빅데이터를 통해 전국을 37만여개 블록으로 나눈 지도와 연동시켜 범죄 가능성을 1부터 100 사이 숫자로 표현하는데 숫자가 높은 지역을 효율적으로 순찰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2. 기본원리

CPTED는 가해자, 피해자, 장소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범죄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범죄 예방을 위해 환경범죄학 이론을 토대로 삶의 질을 증대시키는 기법이다. 즉, 범죄 발생 기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공간계획 및 시설디자인으로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저감시키는 일련의 예방대책이다.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 자연적 접근통제(access control), 영역성의 강화(territoriality), 활동성 활성화(Activity support) 그리고 유지관리(maintenance and management) 등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는데 현행 법규는 이러한 기본원리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자연적 감시란 합법적인 공공장소의 이용자들에게 외부인의 일상 활동을 관찰할 수 있도록 가시성을 극대화하여 영역을 설계하는 것을 말하는데 조명설계, 건물구조, 외벽창문, 담장 등이 응용될 수 있다. 자연적 접근통제는 도로정비, 조경 등을 통해 일정한 공간의 진출입을 차단하여 범죄 목표물로의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범죄행동의 노출위험을 증가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원리인데 방법용 CCTV, 방법벨, 방법창 등에서 응용된다. 영역성 강화는 어떤 지역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조성하여 잠재적 범죄자가 스스로 감시받거나 제지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하여 범죄 욕구를 억제시키는 원리로서 울타리, 각종 표지판, 도로포장 등에서 응용된다. 활동성의 활성화는 공공장소에 대한 일반인들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자연스런 감시를 강화하여 범죄발생을 감소시키고 일반인이 안전감을 느끼도록 하는 원리이다.<sup>12)</sup> 마지막으로 유지관리란 깨진 유리창이론(Broken Window theory)을 토대로 유지 및 관리가 되지 않은 공간과 시설에서는 일반인의 책임의식이 약화되고 이로 인해 각종 무질서 및 범죄가 증가될 수 있으므로 시설물과 공공장소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된다는 이론이다.

셉테드관련 이론들은 범죄유발 원인의 분석에 의해 범죄기회를 감소시키기 위해 사회적 환경에 따른 범죄유발요인을 분석하여 범죄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범죄학의 분야로써 잠재적 범죄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에 초점을 두고 안전사회 및 삶의 질을 높인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또한 셉테드는 5가지 명제를 가정하고 있는데 첫째, 범죄자들은 범법행위를 하도록 동기화되지만 대부분 범행과 관련된 위험결과를 무시할 정도로 강한 동기를 가지지 못한다는 점. 둘째, 범죄자들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범행에 필요한 비용과 이익을 비교 검토한다는 점. 셋째, 범죄자들은 자신들이 범행과 관련된 비용과 얻게 될 이익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는 단

12) 서울 마포구 염리동은 핫스팟(hot spot)설정 후, 핫스팟을 연결한 선을 중심으로 ‘소금길’을 조성함과 동시에 운동 동선으로 조성하여 활용성을 증대시켰다.

서들을 환경 속에서 찾는다. 넷째, 범죄자들은 특정지역의 적당한 목표물의 숫자를 의미화하여 기회가능성으로 반응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적당한 목표물이란 최소한의 체포위험성, 최소의 노력, 최대의 보상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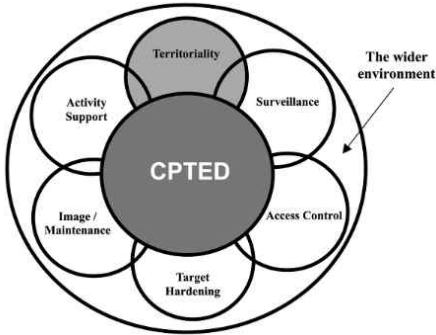


그림 2. CPTED 기본원리<sup>13)</sup>  
 Fig. 2. CPTED fundamental principle

### III. CPTED의 적용사례

#### 1. 국외 적용사례

미국은 1996년 플로리다 주에서 처음으로 밝은 조명과 CCTV를 설치하는 등 CPTED 전략을 적용하였는데<sup>14)</sup> 2005년에는 약 40%의 범죄감소율을 보였다. CCTV를 활용한 감시시스템은 야간방범, 교통 및 주차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등 다양한 목적으로 운영되어 인력 및 비용의 절감 효과를 거두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sup>15)</sup> 물론 CCTV는 범죄예방과 인권침해 사이에 논란이 있지만 현대 위험사회에서 전자의 주장이 우세하다. 이후 미국은 모든 건축물과 환경에 CPTED를 적용하였고 대지경계와 자연감시를 강조하였다.

영국은 방범환경설계제도(Secured By Design, SBD)를 통해 CPTED 전담경찰관에게 방범관련 제품과 건축물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인증할 수 있는 CPTED 인증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지하철 및 빈곤가에서 영역관리와 보안용 담장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은 2000년 공공시설 및 주거의 안전기준 강화정책을 실시하여 조명과 연락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축건물과 재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다.

13) Adapted from Moffat(1983, p.23)  
 14) 플로리다주의 'Safe Neighborhoods Act'는 세계 최초의 정식 CPTED와 관련된 법률이다.  
 15) Y. H. Shim & H. J. Park, "A Study on a Violence Recognition System with CCTV," The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Vol. 16, No. 1, pp. 25-26, Feb. 2015.

#### 2. 국내 적용사례

##### 1) 최초 시범지역 경기도 부천 CPTED

범죄의 증가로 사회적 안전체계의 필요성이 높아진 부천시는 최초로 CPTED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실제로 범죄 발생률이 감소되어 셉테드의 효과를 입증하였다. 부천시는 우범지대 방범 CCTV, 가로등 설치, 보안등 위치 및 조도 조정, 자율방범대, 가스배관의 철침판 설치, 자동 조명장치, 벽화 등을 적용하였다.



그림 3. 부천시 벽화 셉테드  
 Fig. 3. Wall Painting CPTED of Bucheon

##### 2) 서울지역 CPTED

서울은 2012년 마포구 염리동을 시작으로 관악구 행운동, 중랑구 면목동, 도봉구 쌍문동 등에 범죄예방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염리동은 어두운 1.7Km의 골목길을 '소금길'로 지정하고 CCTV와 전신주 위치 번호판 부착, 지킴이 집 지정 등을 통해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하여 활성화하고 있다. 쌍문동도 개방형 담장, 벽화조성, 계단 정비 등을 통해 개인 등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영역임을 보여주는 '영역성 강화'에 의한 범죄예방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그림 4. 소금길 CCTV와 LED방범등, 반사경, 비상버저  
 Fig. 4. CCTV & LED Security lighting fixture & Reflector & Emergency Buzzer



### 3) 부산 사상구 덕포동 CPTED

2010년 김길태 사건이 발생했던 부산 덕포동은 골목길에 친근감을 주는 범죄예방 벽화, 방범 CCTV와 가로등, 반사거울, 비상벨, 블랙박스 등을 설치하여 범죄기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환경설계를 하고 있다. 특히 벽화는 심리학적으로 범죄원인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CPTED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그림 5. 부산 벽화 셉테드  
Fig. 5. Wall Painting CPTED of Busan

### 3) 광주지역 CPTED

광주광역시도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곳을 선정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추진하고 있다. 주로 낙후된 지역과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LED보안등, CCTV, 비상벨, 반사경, 방범안심초소 등을 설치하고 도로에 특수 형광페인트를 도포하고 낮은 담장을 도색하는 등 잠재적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개선하였다. 특히 외국인 밀집지역은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며 민관협의체나 전문가 집단에 의한 주기적인 범죄예방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교류를 증진시켜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감시함으로써 사전에 범죄의도를 위축시켜야 한다.



그림 6. 광주 방범안심초소  
Fig. 6. Crime Prevention guard post of Gwangju

## IV. CPTED의 개선방안

### 1. CPTED의 효율적 비용투입

범죄예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 자료들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방대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분석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빅데이터’가 부각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뿐만 아니라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서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왜냐하면 효율성(efficiency)이란 최소한의 투입으로 기대하는 산출물을 얻는 것으로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의미하는데<sup>16)</sup> 범죄예방을 위한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CPTED의 최대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특성이나 주민들의 특성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범죄유형을 파악한 후 범죄 맵(Crime Map)을 작성하여 구체적 사안에 부합하는 CPTED 전략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보통 CCTV 1대를 설치하려면 대략 1000만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선택과 집중이론을 토대로 효율성과 실효성을 감안해야 한다.<sup>17)</sup> 또한 경찰은 CPO(Crime Prevention Officer, 범죄예방진단팀)를 운영하여 범죄대응 패러다임을 기존의 사후대응에서 사전예방에 맞춰 대응하고 있다.

### 2. CPTED의 기법의 다양화 및 표준화

환경범죄학은 범죄기회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건물이나 지역 등의 주변 환경이 지니는 범죄 유발요인을 분석하여 범죄환경의 설계관리를 연구하는 분야이다. 그러므로 특정범죄가 발생한 장소와 범죄유형을 연구하여 사전예방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환경범죄학을 기반으로 한 CPTED 기법도 모든 지역에 일괄되게 적용하는 것은 실효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각 지역마다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가 많은 지역과 폭행의 빈도가 높은 지역, 절도, 행정질서위반 사범이 높은 지역 등 그 지역의 특색 및 특성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CPTED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보편적이고 일관적 기법은 각종 범죄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범죄유형 및 발생빈도는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상대성에 의해 다르게 나타난다. CPTED 기법에 대한 방

16) 경찰학사전, 신현기 외 10명, 2012, 법문사.

예를 들면 경찰활동에 있어서는 음주단속의 인력과 시간, 장비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 등을 투입비용으로 환산하고 음주운전 측정건수나 음주운전 단속건수를 산출로 환산하여 음주운전단속의 효율성을 계산한다고 볼 수 있다.

17) 부천시 2006년 방범 CCTV를 총 51대 설치하였는데 설치비용은 약 5억 1천만원이 소요되었다. 그 밖의 연간 유지 및 관리비용 약 2억원, 모니터 요원 인건비 약 1억 5천만원이 비용으로 산정되었다. 정유진, CPTED의 경제성 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 2010, 52면.

향성과 가이드라인이 없이 개별적으로 연구되는 것은 예산 낭비와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CPTED 표준화 작업을 통해 제도화 함으로써 환경적 특성과 범죄예방의 효과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 3.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협력체제 구축

안전사회 구축 및 범죄예방은 오로지 경찰만의 임무라기보다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 주민들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CPTED는 건축학, 범죄학, 법학, 사회학, 심리학, 예술학 등 학제( interdisciplinary) 간 연계를 통해 범죄예방 환경을 설계함으로써 잠재적 범죄자의 범죄기회를 감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CPTED 주체는 건축회사와 디자인 업체 등 민간기업과 형사법 분야의 전문가이다. 왜냐하면 범죄분석과 이에 따른 디자인 설계는 양수 레바퀴이므로 한쪽 바퀴가 잘못 굴러가면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그러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학술단체 및 민간기관의 역할분담을 적절히 분담하여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대전담 경찰관(APO, Anti-Abuse Police Officer), 학교전담 경찰관(SPO, School Police Officer),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와 범죄예방협의회를 구성해 적극적인 치안시설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

## V. 결 론

범죄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발생하는 공통적인 사회병리현상이다. 전통범죄학이 범죄의 발생원인에 대한 사후처벌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현대범죄학은 범죄예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안전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범행기회의 축소와 범행의 용이성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사전적 범죄예방 수단으로서 CPTED 전략을 통해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CPTED는 환경의 설계와 이용을 통해 감시효과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환경범죄학의 도구이자 전략이다. 이를 위해서는 물리적 설계, 주민의 참여, 경찰 활동 정책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수립하여 학교, 도시지역, 범죄다발지역 등 지역사회 전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범죄에 대한 공포를 사전에 제거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CPTED는 범죄발생 기회감소 전략뿐만 아니라 공간사용자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 전략도 병행해야 한다.

향후에는 더욱더 범죄예방을 위해 CPTED의 필요성이 증가될 것이다. 경찰청에서는 2016년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을 계기로 범죄예방진단팀, 지방자치단체, 학술단체,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범죄예방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이 협의회는 방법진단 결과 및 취약지역 및 요소를 파악하여 범죄예방 강화구역을 지정한 후 범죄 취약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결국 현대 위험사회에서는 전통적 방식인 형벌에 의한 위하를 통해 범죄를 억지하는 전통적 방법이나 교육 및 복지정책 등을 통해 재사회화하는 사회복귀모델 보다는 환경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 범죄를 방지하는 환경공학적 범죄통제모델이 법제도 및 정책에 투영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Jane Jacobs,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Vintage Books, 1961.
- [2] C. Ray. Jeffery.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Sage Publications, 1971.
- [3] Oscar Newman. Defensible Space. New York:Macmillan, 1972.
- [4] Y. H. Shim & H. J. Park, " A Study on a Violence Recognition System with CCTV," The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Vol. 16, No. 1, pp. 25-26, Feb. 2015.
- [5] E. G. Jung, Study on economic feasibility of the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0.
- [6] H. G. Sin, Police Science Dictionary, 2012.
- [7] S.B.Lee, Difficulties and Improvement Plan in Applying CPTED in South Korea, Kyungpook Natginal University, 2015.



박광현(Kwang-Hyun Park)

2008년 : 전남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2011년 : 전남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

2011년~2012년: 전남대, 원광대법학전문대학원 외래강사  
2015년~2017년: 중앙경찰학교 외래교수  
2013년~현 재: 광주여자대학교 경찰법학과 교수  
※관심분야 : CPTED, 범죄예방, 정보보호, 빅데이터 등